

산상수훈, 교훈인가? 구원론인가?

- 읽을 말씀 마 4:23-5:1
- 주요 내용

오늘은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설교인 산상수훈을 어떤 초점으로 설교할 것인지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가장 대표적이고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데이비드 터너는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윤리적인 가르침” 이라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를 넘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진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용의 교수님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다섯 가르침 단락들 중 첫째 단락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준다... 산상설교인 5-7장은 8-9장과 함께 ‘가르침’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각각 소개해준다. 5-9장의 이러한 상호 연관된 기능은 이 단락을 시작하는 4:23과 끝맺는 9:35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가르침’과 ‘능력 행함’의 내용으로 요약하는 거의 동일한 문구의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의해 확고히 드러난다.

산상수훈은 단지 가장 뛰어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과 진리들의 핵심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인 산상수훈을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계획입니다.

1. 저는 산상수훈 본래의 의미에 가장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신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침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처럼 변질되고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 각 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시 19:7-8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율법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은 모두 완전합니다. 누가 어떤 설교를 하든 성경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억지로 교훈을 끌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혼을 위한 최고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2. 저는 산상수훈에 드러난 구원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원래 구원론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하겠다고 하면 오해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 라는 의문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한다는 말은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것과 절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구원을 협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훨씬 광의적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과거(엡 2:8), 현재(빌 2:12), 미래(딤후 4:18) 시제의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각 칭의, 성화, 영화 즉 ‘구원의 서정’을 가리킵니다. 칭의 혹은 중생만 구원론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까지 모두 구원론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칭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성화), 어떤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지(영화)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서론 (마 5:3-16) ‘팔복’ 은 칭의 혹은 중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본론 (마 5:17-7:12) 율법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은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마 7:13-27) 심판에 대한 말씀은 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산상수훈 전체가 구원론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단지 윤리나 교훈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됩니다. 산상수훈이 구원론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구원론을 선명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세계적인 신약학자로서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을 30년 넘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백성을 윤리적 관점에서 묘사한 초상화다...이 책에 단순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리신 초상화의 모습과 일치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산상수훈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빈틈없이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산상수훈 앞에 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산상수훈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전처럼 대강 자기를 살피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가 매시간 여러분을 바꾸어놓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 정말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산상수훈을 펴고 다시 읽으십시오.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 때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마다 산상수훈을 영적인 전신거울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산상수훈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좁은 길은 가려는 마음이 진실한지 점검해보고, 이 가르침으로 영적 거울을 삼아 변화되고자 하는 확고한 결단이 세워졌는지 나누어 봅시다.